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

의안 번호	888
----------	-----

발의연월일 : 2013. 2. 19.
발의자 : 김길수 의원 등 8인
(공동발의)

1. 주 문

1970년도에 문을 연 달성공원동물원은 43여년 전통의 영남권 유일의 도심속 동물원으로 대구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에게 동물체험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심속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달성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달성토성 복원사업으로 동물원 이전이 불가피하여 현재 동물원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빈면 전체면적의 6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행사 제약은 물론 토지의 개발 및 이용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장기간 지역개발에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다사읍의 도시화 및 성서5차산업단지 조성, 현풍·유가면의 대구테크노폴리스, 구지면의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엄청난 발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하빈면은 번영회를 중심으로 대구교도소 하빈 이전 사업을 계기로 하빈지역의 재도약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46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동물원 하빈 이전유치를 제안하여, 10여년간 장기 표류하고 있는 동물원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대구교도소 하빈 이전(금년 상반기내 보상완료 예정)으로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데 대한 인센티브 차원과 대구전체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대구서부지역과 동부지역과의 균형발전은 물론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동물원 하빈 이전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하빈지역은 대구시의 타 지역보다 저렴한 토지 매입비와 광역적인 교통 접근성, 그리고 육신사와 태고정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하여 4대강 사업으로 정비된 강정보의 생태자원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동물원을 하빈으로 이전 시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달성군의회에서는 소외되고 낙후된 하빈면의 지역 균형발전과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달성공원 동물원을 하빈면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 제안이유

- 43여년 전통의 영남권 유일의 도심속 동물원인 달성공원동물원이 최근 들어 도심속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달성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달성토성 복원사업으로 동물원 이전이 불가피하여 현재 동물원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하빈면 전체면적의 67%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행사 제약은 물론, 토지의 개발 및 이용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장기간 지역개발에 소외되어 있던 하빈면 지역주민들은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번영회를 중심으로 대구교도소 하빈 이전 사업을 유치하고, 이어 46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음.
- 이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전유치를 희망하고, 달성군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하빈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달성공원동물원을 하빈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3. 참고사항

-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내용 1부.
- 건의안 배부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의회의회장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

1970년도에 문을 연 달성공원동물원은 43여년 전통의 영남권 유일의 도심속 동물원으로 대구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에게 동물체험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심속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달성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달성토성 복원사업으로 동물원 이전이 불가피하여 현재 동물원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빈면 전체면적의 6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행사 제약은 물론 토지의 개발 및 이용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장기간 지역개발에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다사읍의 도시화 및 성서5차 산업단지 조성, 현풍·유가면의 대구테크노폴리스, 구지면의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엄청난 발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하빈면은 번영회를 중심으로 대구교도소 하빈 이전 사업을 계기로 하빈지역의 재도약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46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동물원 하빈 이전유치를 제안

하여, 10여 년간 장기 표류하고 있는 동물원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대구교도소 하빈 이전(금년 상반기내 보상완료 예정)으로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데 대한 인센티브 차원과 대구전체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대구서부지역과 동부지역과의 균형발전은 물론 도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동물원 하빈 이전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하빈지역은 대구시의 타 지역보다 저렴한 토지 매입비와 광역적인 교통 접근성, 그리고 육신사와 태고정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하여 4대강 사업으로 정비된 강정보의 생태자원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동물원을 하빈으로 이전 시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달성군의회에서는 소외되고 낙후된 하빈면의 지역 균형발전과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달성공원동물원을 하빈면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3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

- 김길수 의원 등 8인 발의 -

발의자 서명부

구 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원	배 사 돌	배 사 돌	
의 원	김 길 수	김 길 수	
의 원	김 기 석	김 기 석	
의 원	하 용 하	하 용 하	
의 원	정 수 헌	정 수 헌	
의 원	채 명 지	채 명 지	
의 원	송 성 열	송 성 열	
의 원	김 옥 순	김 옥 순	